

26. 브라만의 장

Brāhmaṇavaggo

The Noble One

383. 노력하여 흐름을 끊고
욕망을 제거하라, 브라만이여!
조건으로 형성된 것의 소멸을 알고
열반을 아는 자가 되어라, 브라만이여!

*Chinda sotam parakkamma kāme panuda brāhmaṇa
Sāṅkhārānaṃ khayam ñatvā akataññūsi brāhmaṇa.*

Exert yourself, O holy man!
Cut off the stream, and discard sense desires.
Knowing the destruction of all the conditioned things,
become, O holy man, the knower of the Uncreated!

* 브라만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가장 높은 계급으로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사람의 가치는 출생의 계급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이 정해진다. 제자들을 브라만이라 부르시며 마음의 청정함을 위해 노력하라 말씀하신다.

384. 두 가지 법 가운데
브라만이 저 너머로 건너갈 때
바로 이때 아는 그에게
모든 속박이 사라진다.

*Yadā dvayesu dhammesu pāragū hoti brāhmaṇo
Athassa sabbe saṃyogā atthaṃ gacchanti jānato.*

When a holy man has reached
the summit of two paths,
he knows the truth
and all his fetters fall away.

* 여기서 두가지 법이란 참선.명상을 통한 마음의 집중과 집중을 통한 바로봄, 즉 관찰을 뜻한다
주석서는 설명한다. 집중(선정)을 바탕으로 관찰(이해)를 통해 지혜가 완성이 되어 깨달음이 성취
된다 설명한다.

385. 저 너머와 여기,
또는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고 구속이 없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a pāraṃ apāraṃ vā pārāpāraṃ na vijjati
Vītaddaraṃ visamyuttaṃ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for whom there is neither this shore
nor the other shore, nor yet both,
he who is free of cares and is unfettered—
him do I call a holy man.

* 저 너머, 피안은 열반의 세상을, 여기는 윤회하는 세상을 뜻한다 설명한다.

386. 명상하여 더러움이 없고
할 일을 하여 번뇌가 없는
최상의 목표에 도달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Jhāyīṃ virajamāsīnaṃ katakiccamanāsavaṃ
Uttamattham anuppatt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s meditative, stainless and settled,
whose work is done and who is free from cankers,
having reached the highest goal—him do I call a holy man.

387.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전사는 무장으로 빛나고
브라만은 명상으로 빛난다.
그러나 모든 낮과 밤,
깨달은 이는 찬란하게 빛난다.

*Divā tapati ādicco rattimābhāti candimā
Sannaddho khattiyo tapati jhāyī tapati brāhmaṇo
Atha sabbam ahorattaṃ buddho tapati tejasā.*

The sun shines by day, the moon shines by night.
The warrior shines in armor, the holy man shines in meditation.
But the Buddha shines resplendent all day and all night.

388. 악행을 물리쳐 브라만이라 부르고
고요히 살기에 수행자라 부르며
자신의 더러움을 떠났기에
이로써 출가자라 부른다.

Bāhitapāpoti brāhmaṇo samacariyā samaṇoti vuccati
Pabbājayamattano malaṃ tasmā “pabbajito”ti vuccati.

Because he has discarded evil, he is called a holy man.
Because he is serene in conduct, he is called a recluse.
And because he has renounced his impurities,
he is called a renunciate.

389. 브라만은 브라만을 때려서는 안되고

맞고 화를 내서도 안된다.

브라만을 해치는 자도 안타깝고

맞고 화를 내는 자는 더 안타깝다.

*Na brāhmaṇassa pahareyya nāssa muñcetha brāhmaṇo
Dhī brāhmaṇassa hantāraṃ tato dhī y'assa muñcati.*

One should not strike a holy man, nor should a holy man,
when struck, give way to anger.

Shame on him who strikes a holy man,
and more shame on him who gives way to anger.

390. 소중한 것들에 마음을 제어함 보다
브라만에게 더 좋은 것은 없다.
해치려는 마음에서 멀어질 때
그때에 고통이 잦아든다.

*Na brāhmaṇass' etad akiñci seyyo yadā nisedho manaso piyehi
Yato yato hiṃsamano nivattati tato tato sammatim eva dukkhaṃ.*

Nothing is better for a holy man
than when he holds his mind back from what is endearing.
To the extent the intent to harm wears away,
to that extent does suffering subside.

391.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제어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a kāyena vācāya manasā natthi dukkaṭaṃ
Saṃvutaṃ tīhi ṭhānehi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does no evil in deed,
word and thought,
who is restrained in these three ways—
him do I call a holy man.

392. 바르게 완전히 깨달은 분이 가르친 법을
누군가 알려 준다면
브라만이 제사에 올린 불을 섬기듯
마땅히 그를 존경해야 한다.

*Yamhā dhammaṃ vijāneyya sammāsambuddhadesitaṃ
Sakkaccaṃ taṃ namasseyya aggihuttaṃ va brāhmaṇo.*

Just as a brahman priest reveres his sacrificial fire,
even so should one devoutly revere
the person from whom one has learned
the Dhamma taught by the Buddha

393. 길게 땋은 머리와 가문,
출생으로 브라만이 되지 않는다.
내면에 진실과 법이 있어
청정한 그가 바로 브라만이다.

*Na jaṭāhi na gottena na jaccā hoti brāhmaṇo
Yamhi saccaṅ ca dhammo ca so sucī so ca brāhmaṇo.*

Not by matted hair, nor by lineage,
nor by birth does one become a holy man.
But he in whom truth and righteousness exist—
he is pure, he is a holy man.

394. 어리석은 자여, 너의 길게 땀은 머리와
염소가죽의 옷이 무슨 소용인가?
내면이 우거진 덩굴인데
너는 겉만 닦고 있구나!

*Kiṃ te jaṭāhi dummedha kiṃ te aḥinasāṭiyā
Abbhantaraṃ te gahanaṃ bāhiraṃ parimajjasi.*

What is the use of your matted hair, O witless man?
What of your garment of antelope's hide?
Within you is the tangle (of passion);
only outwardly do you cleanse yourself.

* 부처님 당시, 집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여 극심한 고행을 하던 수행자들은 헝클어서 길게 땀은 머리를 하고 가죽 옷을 입었다 한다. 지금 인도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을 찾아 볼 수 있다.

395. 쓰레기 더미 냥마를 입고
야위어 힘줄이 온몸에 드러나
홀로 숲에서 명상하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Paṃsukūladharaṃ jantuṃ kisaṃ dhamisanthataṃ
Ekaṃ vanasmiṃ jhāyant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The person who wears a robe made of rags,
who is lean, with veins showing all over the body,
and who meditates alone in the forest—
him do I call a holy man.

396. 모태의 출생을 이유로

나는 브라만이라 부르지 않는다.

만약 세속적 욕망이 있는 자라면

그저 이름만 브라만일 뿐

세속적 욕망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Na cāhaṃ brāhmaṇaṃ brūmi yonijaṃ mattisambhavaṃ

Bhovādi nāma so hoti sace hoti sakiñcano

Akiñcanaṃ anādān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I do not call him a holy man

because of his lineage or high-born mother.

If he is full of impeding attachments,

he is just a supercilious man.

But who is free from impediments and clinging—

him do I call a holy man.

397. 모든 속박을 끊고
진정 흔들림이 없는
집착을 뛰어넘어 결박이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Sabbasaṃyojanaṃ chetvā yo ve na paritassati
Saṅgātigaṃ viśaṃyutt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ving cut off all fetters, trembles no more,
who has overcome all attachments and is emancipated—
him do I call a holy man.

398. 고삐와 포승줄,
족쇄와 재갈을 끊고
장애를 던져버려 깨달은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Chetvā nandhiṃ varattañ ca sandānaṃ sahanukkamaṃ
Ukkhittapalighaṃ buddh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s cut off the thong (of hatred),
the band (of craving), and the rope (of false views),
together with the appurtenances (latent evil tendencies),
he who has removed the crossbar (of ignorance) and is enlightened—
him do I call a holy man.

399. 잘못이 없음에도

욕설과 매질과 구속을 견디며

강한 인내력을 군대로 가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Akkosaṃ vadhabandhañca aduṭṭho yo titikkhati
Khantībalaṃ balānīk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without resentment endures abuse,
beating and punishment;
whose power, real might, is patience—
him do I call a holy man.

400. 성냄이 없이 서원을 잘 지키고
교만함이 없이 계행을 잘 지켜
다스림으로 마지막 몸이 되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Akkodhanaṃ vatavantaṃ sīlavantaṃ anussadaṃ
Dantaṃ antimasārīr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s free from anger, is devout, virtuous,
without craving, self-subdued and bears his final body—
him do I call a holy man.

401. 연잎에서 물이 떨어지듯
송곳에 겨자씨가 뚫리지 않듯이
감각적 욕망에 물들지 않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Vāri pokkharapatteva āraggeriva sāsapo
Yo na lippati kāmesu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Like water on a lotus leaf,
or a mustard seed on the point of a needle,
he who does not cling to sensual pleasures—
him do I call a holy man.

402. 바로 여기에서 스스로
고통의 소멸을 알아
짐을 내려놓고 구속이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dukkhassa pajānāti idheva khayamattano
Pannabhāraṃ viṣaṇyutt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n this very life realizes for himself the end of suffering,
who has laid aside the burden and become emancipated—
him do I call a holy man.

403. 지혜가 깊고 현명하여
길과 길 아님을 잘 알아
최상의 목표를 성취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Gambhīrapaññaṃ medhāvīṃ maggāmaggassa kovidam
Uttamatthamanuppattam tam aham brūmi brāhmaṇam.*

He who has profound knowledge,
who is wise, skilled in discerning the right or wrong path,
and has reached the highest goal—
him do I call a holy man.

404. 재가자들과 출가자들,
이 둘 모두와 어울리지 않고
집 없이 떠돌며 욕심이 적은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Asaṃsaṭṭhaṃ gahaṭṭhehi anāgārehi c' ūbhayaṃ
Anokasārimappicch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olds aloof from householders and ascetics alike,
and wanders about with no fixed abode and but few wants—
him do I call a holy man.

405.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에게 몽둥이를 내려놓고
죽이지 않고, 죽게도 하지 않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Nidhāya daṇḍaṃ bhūtesu tasesu thāvaresu ca
Yo na hanti na ghāteṭi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s renounced violence
towards all living beings, weak or strong,
who neither kills nor causes others to kill—
him do I call a holy man.

406. 다투는 자들 가운데 다투지 않고
몽둥이를 든 자들 가운데 평화로우며
집착하는 자들 가운데 집착이 없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Aviruddhaṃ viruddhesu attadaṇḍesu nibbutaṃ
Sādānesu anādān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s friendly amidst the hostile,
peaceful amidst the violent,
and unattached amidst the attached—
him do I call a holy man.

407. 탐욕과 성냄

자만과 위선을 쓰러뜨려

송곳에 뚫리지 않는 겨자씨 같은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a rāgo ca doso ca māno makkho ca pātito
Sāsaporiva āraggā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se lust and hatred, pride

and hypocrisy have fallen off

like a mustard seed from the point of a needle—

him do I call a holy man.

408. 유익한 진실을
부드럽게 말하여
누구도 화나게 하지 않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Akakkasaṃ viññāpaṇiṃ giraṃ saccamudīraye
Yāya nābhisaje kañci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utters gentle,
instructive and truthful words,
who imprecates none—
him do I call a holy man.

409. 여기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작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세상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dha dīghaṃ va rassaṃ vā aṇuṃ thūlaṃ subhāsubhaṃ
Loke adinnaṃ nādiyati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n this world takes nothing
that is not given to him,
be it long or short, small or big, good or bad—
him do I call a holy man.

410.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고
의지함이 없이 구속이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Āsā yassa na vijjanti asmiṃ loke paramhi ca
Nirāsayaṃ viṣaṃyutt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wants nothing of either this world or the next,
who is desire-free and emancipated—
him do I call a holy man.

411. 집착 없이 알고
의심 없이 이해하여
불사의 경지에 다다른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ālayā na vijjanti aññāya akathaṃkathī
Amatogadham anuppattaṃ tama 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s no attachment,
who through perfect knowledge is free from doubts
and has plunged into the Deathless—
him do I call a holy man.

412. 여기 선과 악

이 모두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

슬픔이 없고 더러움이 사라져 청정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dha puññañca pāpañca ubho saṅgamupaccagā
Asokaṃ virajaṃ suddhaṃ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n this world has transcended
the ties of both merit and demerit,
who is sorrowless, stainless and pure—
him do I call a holy man.

413. 달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는
존재함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Candaṃva vimalaṃ suddhaṃ vip̄pasannamaṇāvilaṃ
Nandībhavaparikkhīṇ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like the moon,
is spotless and pure, serene and clear,
who has destroyed the delight in existence—
him do I call a holy man.

414. 위험한 길과 험한 곳
윤회와 무지를 지나
명상으로 건너 저 너머에 이르러
갈망과 의심이 사라지고
집착을 버려 열반을 성취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imaṃ palipathaṃ duggaṃ saṃsāraṃ moham accagā
Tiṇṇo pāragato jhāyī anejo akathaṃkathī
Anupādāya nibbuto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ving traversed this miry,
perilous and delusive round of existence,
has crossed over and reached the other shore;
who is meditative, calm, free from doubt,
and, clinging to nothing, has attained to Nibbana—
him do I call a holy man.

415. 여기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집없이 떠돌며
존재함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dha kāme pahatvāna anāgāro paribbaje
Kāmabhavaparikkhīṇ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ving abandoned sensual pleasures,
has renounced the household life and become a homeless one;
has destroyed both sensual desire and continued existence—
him do I call a holy man.

416. 여기 갈애를 버리고
집없이 흘러 다니며
존재함의 갈애가 완전히 사라진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o' dha taṇhaṃ pahantvāna anāgāro paribbaje
Taṇhābhavaparikkhīṇ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ving abandoned craving,
has renounced the household life and become a homeless one,
has destroyed both craving and continued existence—
him do I call a holy man.

417. 인간의 속박을 버리고
천상의 속박도 뛰어넘어
모든 속박을 풀어버린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Hitvā mānusakaṃ yogaṃ dibbaṃ yogaṃ upaccagā
Sabbayogavisamyuttaṃ taṃ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casting off human bonds
and transcending heavenly ties,
is wholly delivered of all bondages—
him do I call a holy man.

418. 좋고 싫음을 모두 버리고
평정으로 집착이 사라져
모든 세상을 정복한 영웅인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Hitvā ratiñca aratiñca sītibhūtaṃ nirūpadhiṃ
Sabbalokābhibhuṃ vīr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having cast off likes and dislikes,
has become tranquil,
is rid of the substrata of existence and
like a hero has conquered all the worlds—
him do I call a holy man.

419. 중생들의 죽음과

태어남을 두루 알고

집착 없이 잘 건너가 깨달은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Cutiṃ yo vedi sattānaṃ upapattiṅca sabbaso

Asattaṃ sugataṃ buddh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in every way knows

the death and rebirth of all beings,

and is totally detached, blessed and enlightened—

him do I call a holy man.

420. 신들과 건달바와 인간들도
그의 간 곳을 알지 못하고
변뇌를 소멸하여 공양받아 마땅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a gatim na jānanti devā gandhabbamānusā
Khīṇāsavaṃ arahantaṃ tam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se track no gods, no angels,
no humans trace, the arahant
who has destroyed all cankers—
him do I call a holy man.

* 건달바는 음악가로 묘사되는 낮은 하늘 세상의 신의 한 부류이다.

421.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집착할 무엇이 없어
소유함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Yassa pure ca pacchā ca majjhe ca natthi kiñcanaṃ
Akiñcanaṃ anādān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clings to nothing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who has no attachment and holds on to nothing—
him do I call a holy man.

422. 황소처럼 뛰어난 영웅이고
위대한 성자이자 승리자이며
갈망을 제거한 목욕으로 깨달은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Usabhaṃ pavaraṃ vīraṃ mahesiṃ vijitāvinam
Anejaṃ nahātakaṃ buddh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m.*

He, the Noble, the Excellent, the Heroic,
the Great Sage, the Conqueror, the Passionless,
the Pure, the Enlightened one—
him do I call a holy man.

423. 과거 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며
또한 통찰의 지혜를 얻은 성자로
태어남의 소멸에 들어
모든 성취를 완성한 그를
나는 브라만이라 부른다.

*Pubbenivāsaṃ yo vedi saggāpāyaṅca passati
Atho jātikkhayaṃ patto abhiññāvosito muni
Sabbavositavosānaṃ tam ahaṃ brūmi brāhmaṇaṃ.*

He who knows his former births,
who sees heaven and hell,
who has reached the end of births
and attained to the perfection of insight, the sage
who has reached the summit of spiritual excellence—
him do I call a holy man.